

조선시대 『心經』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마현민(성균관대)

목 차

1. 들어가며
2. 존덕성과 도문학
3. 인심과 도심
4. 수양과 정치
5. 나가며

1. 들어가며

조선 학자들에게 있어 제일의 문제는 주자학의 궁구였으며 이를 위한 텍스트는 단연 사서삼경으로 대표되는 유가 경전이였다. 그렇기에 조선의 학문은 유가 경전에 대한 궁구인 경학을 위주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유학은 修己와 治人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여기서의 수기는 행동거지는 물론이요 마음가짐의 문제 또한 포함한다. 朱子를 비롯한 송대의 도학자들이 수기의 방법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과 관련된 공부이다. 주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未發時의 涵養 공부인 敬 공부를 제시하였다. 이는 곧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주자 이래 도학자들은 마음을 수양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탄생한 저작이 『心經』이다. 『심경』은 남송 시대의 眞德秀가 마음의 문제에 주목하여 유가 경전에서 心[마음]과 관련된 여러 글귀를 모아 주석을 덧붙인 책이다. 그 범위는 『書經』과 『周易』을 비롯한 경전에서 周敦頤, 程頤 등 후대 도학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가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통시적인 시각을 『심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심경』에 대한 탐구는 결국 유가 경전에서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 진덕수는 『심경』을 통해 주자학에서 말하는 수기, 즉 마음공부의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진덕수는 『심경』 뿐 아니라 『政經』과 『大學衍義』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진덕수가 후대 제왕학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정경』 및 『대학연의』와 함께 『심경』을 편찬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성리학에 있어 새의 두 날개이자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수기와 치인의 방법을 진덕수는 저술을 통해 일러주고자 한 것이다.

그중 『대학연의』는 진덕수가 지은 『대학』의 해석서로 經書와 史書를 아울러서 지은 책이다. 곧 『대학』의 내용을 확대하여 경전의 말을 인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례를 모아 『대학연의』 43권을 지은 것이다. 이는 『대학』이 가지는 수기에서 치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체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¹⁾ 『심경』 역시 경전의 말을 인용하고 아래에 주석을 부기한 것이니 『대학연의』와 『심경』의 체제에서 진덕수가 하나의 주제 아래 그와 관련된 경전의

여러 글귀를 모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심경』에 주석을 부기하여 새롭게 편찬한 程敏政의 『心經附註』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명나라 대의 학자인 정민정은 『심경』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의적인 편집과 해석을 가미하였다. 이에 그는 『심경』에는 없던 새로운 주석을 『심경부주』에 대거 삽입하고 자신의 按說 역시 추가한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그가 추가한 주석과 내용이 다분히 陸象山 계열의 학문 성향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정민정은 유가 수양론의 두 방법인 尊德性과 道問學의 문제에서 육상산의 사상에 스며들어 지나치게 존덕성의 공부로 빠져들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자의 학설이 만년에 이르러서는 육상산의 학문에 합치되었다는 ‘朱子晚年定論’을 주장하였다.

중국에서는 널리 유통되지 못한 『심경부주』는 조선에서 退溪 李滉이 열독하여 일종의 학술적 돌풍을 일으켰다. 퇴계는 성균관에 유학할 때 처음 『심경부주』를 접한 이후 새벽에 일어나면 『심경부주』를 일독할 정도로 호호하였다.²⁾ 심지어 그는 ‘내가 처음 道學에 감흥하여 흥기한 것은 이 책의 힘이었다. 그런 까닭에 평생토록 이 책을 높이고 믿은 것이 四書와 『近思錄』보다 못하지 않았다.’³⁾고 언급하며 『심경부주』를 사서와 버금가는 위치에 자리매김하였다.

이후로 『심경부주』는 퇴계학파의 학자들에게는 물론, 율곡학파에게도 영향력을 확산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조선 전반에 걸쳐 논의되었다. 또한 사대부 뿐만 아니라 궁중의 경연에서 왕에게 진강되기도 하였으니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심경부주』가 가진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태생부터 주자와 육상산의 두 관점을 아우르기 위해 만들어진 『심경부주』는 이후로도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이는 성리학의 두 수양법인 존덕성과 도문학의 관점, 『심경』의 첫장인 인심과 도심에 대한 관점, 개인의 수양서로서의 『심경』과 임금의 치국을 위한 텍스트 등의 면모에서 부각된다. 특히 존덕성, 도문학의 문제와 인심, 도심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각 학자가 처한 입장과 학파에 따라 해석이 나뉘어졌으며 이는 퇴계학파에 속하는 학자들과 율곡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의 입장 차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심경부주』는 각자의 관점에서 저마다의 독법으로 읽히며 조선 사상계의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심경부주』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살펴보고 각 관점을 통해 벌어진 『심경부주』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존덕성과 도문학

조선에서 『심경부주』를 접했다는 기록은 일찍이 靜庵 趙光祖와 晦齋 李彦迪 등의 기록에서부터 확인되지만 『심경부주』를 드높인 것은 퇴계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퇴계는 『심경부주』를 얻어 본 이후 자신의 학문의 지남으로 삼았다. 퇴계가 한 아래의 말이 유명하다.

나는 『심경』을 얻고나서 비로소 心學의 근원과 心法의 정밀하고 미묘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이 책을 신명처럼 믿었고, 이 책을 엄한 아버지처럼 공경하였다.⁴⁾

1) 정재훈, 『『대학연의』와 조선의 정치사상』, 『한국사상사학』 64, 한국사상사학회, 2020, 150면 참조.

2) 『退溪言行錄』 1, 「學問」, “雞鳴而起, 必莊誦一遍, 諦聽之, 乃心經附註也.”

3) 『退溪集』 卷41, 「心經後論」, “初感發興起於此事者, 此書之力也. 故平生尊信此書, 亦不在四子近思錄之下矣.”

4) 『退溪言行錄』 1, 「學問」, “先生自言吾得心經而後, 始知心學之淵源, 心法之精微. 故吾平生信此書如神

이는 원나라 대의 학자인 許衡이 ‘나는 『小學』을 신명처럼 공경하고 부모처럼 높인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퇴계가 『심경부주』를 어떻게 대하는지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퇴계의 수학기는 사화의 여파로 인해 도학이 쇠미해진 시기였다. 『退溪先生言行錄』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기묘사화가 일어난 직후라 유생들조차 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날마다 소일거리를 일삼았다고 한다.⁵⁾

또한 일찍이 『심경부주』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심경부주』를 읽는 퇴계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듯하다. 그런 이에게 퇴계는 아래와 같이 답한다.

지금 부형들은 항상 『심경』과 『근사록』을 강하는 것은 그르다고 하여 자제를 꾸짖고, 배우는 자들도 세상 여론을 두려워하여 이 학문을 강론하는 사람이 적은데 나는 『심경』을 강하고 있으니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학문을 버리고 다른 책을 강론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⁶⁾

퇴계가 이렇게 반론한 이유는 기묘사화의 여파도 있으나 『심경부주』의 내용에 존덕성을 높이는 공부법이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존덕성과 도문학은 『中庸』에서 유래한 성리학의 두 공부법으로, 사람은 내면적인 도덕 수양인 존덕성과 외면적인 학문인 도문학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인간의 이상적인 인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자는 존덕성의 공부 또한 중요하지만 도문학, 즉 외면의 공부를 함께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육상산은 단지 존덕성, 즉 내면의 본심을 보존하기만 하면 자연스레 수양이 된다고 주장하였다.⁷⁾ 그렇기에 주자와 그의 후대 학자들은 육상산의 학문을 禪의 수양법과 비슷하다고 비판하였다.

바로 여기서 정민정과 『심경부주』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바로 정민정이 육상산의 학문에 관심이 많았으며 주자의 공부법과 위배된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정민정의 저작인 『道一編』의 서문을 살펴보자.

주자와 육상산 두 사람의 학문은 출발은 다르지만 그 끝은 같다. 그들의 편지를 보면 상고할 수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왕왕 주자를 높이고 육상산을 배척하니 어찌 앞선 날의 그릇된 논의를 가지고 끝내 같지 않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며 문인들이 손수 쓴 편지를 의심하고 주자가 친히 쓰신 편지에서 바로 취하지 않음이 아니겠는가?⁸⁾

정민정은 주자와 육상산의 만년설이 동일하다는 ‘주자만년정론’을 주창하며 주자 역시 존덕성 공부를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지금껏 주자를 높이고 육상산을 배척한 사람들은 실상을 알지 못한 채 그릇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민정은 존덕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점을

明, 敬此書如嚴父.”

5) 『退溪言行錄』 1, 「學問」, “先生嘗遊學泮宮, 是始初經己卯之變, 人皆以學問爲忌諱, 日以戲謔爲習, 先生獨斂然自持, 動靜言行, 一遵規繩, 見之者相與指笑之, 所與交遊者, 唯金河西麟厚一人而已. 嘗訪上舍姓黃人, 始見心經附註.”

6) 『退溪言行錄』 5, 雜記, “翌日先生又曰今之爲父兄者, 每以講心經近思錄爲非而訶責子弟, 學者亦怵於時議, 尠講此學, 吾講心經, 不無未安之意, 而不容舍吾學而別講他書也.”

7) 박경환, 「공부 방법론으로서의 존덕성과 도문학 : 주희와 육구연의 아호 논쟁」, 『중국철학』 4, 중국철학회, 1994, 246~248면 참조.

8) 程敏政, 『道一編』 序, “朱陸二氏之學, 始異而終同. 見於書者, 可攷也. 不知者往往尊朱而斥陸, 豈非以其早年未定之論, 而致夫終身不同之決, 惑于門人記錄之手, 而不取正于朱子親筆之書邪.”

선대 학자인 吳澄에게서 발견한다. 오징은 「尊德性道問學齋記」에서 본래부터 갖추어진 德性을 견지하는 것이 유가 사상의 본질임을 강조하면서 주자 이후 학자들이 문자상의 공부에만 중점을 두는 폐단을 노출하고 있음을 반성한다.⁹⁾ 정민정은 『심경부주』를 편집하며 오징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 『심경부주』의 가장 마지막 장인 「尊德性齋銘」의 부주에서도 정민정은 도문학에 치중하고 주자와 육상산의 사상을 통합하려는 오징의 설을 대거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입장은 정민정이 『심경부주』에 쓴 서문에서도 잘 드러나있다. 그는 ‘그 註 가운데에 『西山讀書記』라고 칭한 것이 있는데, 程朱大儒들이 열어 보여주고 간절히 경계한 말씀은 이 책에는 들어 있지 않은 점이 의심스러웠다. 생각하건대 『심경』은 본래 선생(진덕수)에게서 나왔으나 註는 後人들이 뒤섞어 넣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¹⁰⁾라고 언급하였다. 『심경』은 훌륭한 글이지만 그 주석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민정은 진덕수가 정주대유의 언설을 빼버린 채 자신의 독서기를 경문의 주석으로 단 것을 의심하며 이는 후인들이 뒤섞어 넣은 것이라 단정한다. 이것이 정민정이 스스로 부족한 주석을 덧붙이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¹¹⁾

그렇게 정민정이 자의적으로 추가한 주석에는 존덕성에 무게를 둔 오징과 같은 학자들의 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심경부주』는 주석을 덧붙인 정민정이 육상산 계열의 존덕성 논의를 지나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렇듯 『심경부주』는 편찬 과정에서부터 다분히 편향적인 공부법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에 조선에서도 『심경부주』의 혐의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어지며 이 문제를 가리는 것이 조선 학자들의 주된 논의였다.

퇴계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대한 퇴계의 대표적인 변론이 「心經後論」이다. 「심경후론」은 퇴계가 그의 제자 月川 趙穆에게 받은 편지 속에서 『심경부주』 및 그 저자 정민정에 대한 의혹에 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조목은 편지를 통해 『皇明通紀』에서 언급된 정민정의 세 문제점을 언급한다. 첫 번째는 과거 시험의 문제를 팔아먹은 일이고 두 번째는 勢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이고 세 번째는 그의 저작 『도일편』의 문제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문제에 대하여 퇴계는 「심경후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아! 진실로 이 말 대로라면 篁墩이 정말로 잘못하였고 그의 학문에 과연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보니 주자와 육상산 두 사람의 다름은 일부러 다르려는 데에 뜻을 둔 것은 아니다. 주자는 유학이요 육상산은 선학이며 이는 바르고 저는 간사하며 이는 공평하고 저는 사사롭고 사나우니 이와 같은데 어찌 서로 같을 수 있겠는가? …… 존덕성 공부로 도문학 공부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은 황돈의 말이 아니요 주자의 뜻이 진실로 이와 같았다. 정황돈은 여기에서 다만 초년과 만년의 구분을 짓는 것에 급급하였기에 온당치 않았을 뿐이다. 그가 주자의 뜻을 따라 진덕수의 경문을 부연하여 각 편의 끝에 주를 달아 末學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한 것은 마땅한 것이어서 바꿀 수 없다.¹²⁾

9) 이봉규, 「『心經附注』에 대한 조선성리학의 대응」, 『태동고전연구』 12, 태동고전연구소, 1995, 73면 참조.

10) 『心經附註』序, “然猶疑其註中, 或稱西山讀書記, 而凡程朱大儒開示警切之言, 多不在卷, 意此經本出先生, 而註則後人雜入之故邪.”

11) 이를 정민정의 기본 입장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정주대유들’이란 주자를 비롯한 후세 학자들 중 존덕성에 무게를 둔 학자를 말하는 것이며 ‘간절히 경계한 말씀’이란 곧 존덕성과 관련된 언급일 것이다.

12) 『退溪集』卷41, 「心經後論」, “噫. 信斯言也, 篁墩其果誤矣. 其爲學, 果有可疑者矣. 蓋嘗思之, 朱陸二氏之不同, 非故有意於不同也. 此儒而彼禪, 此正而彼邪, 此公平而彼私狠. 夫如是, 安得而相同耶. …… 尊德性以抹文義之弊, 非篁墩之說也. 乃朱子之意固然也. 篁墩於此, 但不當區區於初晚之分耳. 若

뒤이어 퇴계는 ‘마땅히 박문과 약례 두 가지를 다 지극히 함은 주자가 이루어 놓은 공이며 知와 行 두 공부를 서로 도와 나가는 것은 우리 儒家의 본래 가법인 줄 알아서, 이것으로 이 경문과 이 주석을 읽고 황돈의 『도일편』의 오류를 그 중간에 끼워 넣어 혼란시키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는 공부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¹³⁾라고 덧붙인다.

이렇듯 퇴계는 정민정이 육상산의 학문에 기울었다는 혐의를 분명히 인정한다. 이와 동시에 존덕성과 도문학 두 가지가 주자학의 기본적인 수양법이어서 어느 한 쪽도 폐할 수 없는 입장을 밝히며 주자의 공부법을 따를 것을 천명하였다.

퇴계는 당대 학자들 중 주자에 대한 이해가 가장 뛰어난 학자였다. 그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주자대전』을 접하고 연구한 학자이며 『주자서절요』 등의 저술을 통해 주자학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퇴계는 만년까지 『심경부주』를 애독하였으며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심경부주』를 강학하였다. 이런 작업을 이어간 퇴계에게 『심경부주』는 주자학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하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민정이 부주에서 구차하게 주자의 초년설과 만년설을 나누어 본 것과 『도일편』에서 저지른 오류를 제외한다면 『심경부주』 자체의 내용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결론적으로 퇴계는 『심경부주』가 존덕성에 치우친 폐단이 있으나 그 하자가 전체를 가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퇴계에게 있어서 『심경부주』는 한 학자의 사상적인 편향의 문제를 벗어난 것이며 마음에 대한 유가 경전의 회집이자 유가 경전의 문장에 대한 위대한 先儒들의 주석서인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입장에 따라 퇴계학파에서는 『심경부주』를 통한 마음공부에 힘썼다.

기실 존덕성과 도문학의 문제는 대부분의 퇴계학파 학자들이 집착하는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심경부주』를 읽음에 그 자체의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인 퇴계의 노선을 따르기 때문이다. 퇴계의 「심경후론」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였고, 만약 존덕성의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의문이 있다면 기록으로 남길 뿐 『심경부주』의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퇴계가 『심경부주』의 내용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문제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자신의 생각을 달면 될 뿐이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에서 연유하였다.¹⁴⁾

하지만 퇴계의 몇몇 제자와 율곡학파에 있어서는 사정이 달랐다. 먼저 조목의 경우 퇴계 생전 지속적인 문답을 통해 의문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폈듯 그는 정민정의 사람됨과 『심경부주』의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퇴계에게 질정을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저작이 『心經稟質』이다. 퇴계 문하에서 일어난 최초의 체계적인 『심경』 문답인 『심경품질』에서 조목은 ‘『심경부주』에는 주석이 없어도 그만이며 만약 단다면 경전의 本註에서 달아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소략하다.’며 『심경부주』의 주석을 비판하고 주석을 새로이 달 것을 퇴계에게 묻는다. 다만 퇴계는 이에 대해 ‘지금 만약 주석을 한 번에 바꾼다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길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¹⁵⁾ 비록 조목은 퇴계의 의견에 따라 『심경부주』를 수용하

其遵朱子之意，贊西山之經，註此於篇終，欲以揅末學之誤，實亦至當而不可易也。”

13) 『退溪集』 卷41, 「心經後論」, “當知博約兩至，朱子之成功，二功相益，吾儒之本法，以此讀此經此註，而不以筆墩道一編之繆，參亂於其間，則所以爲聖爲賢之功，端在於此矣。”

14) 홍원식 외,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예문서원, 2008, 113면 참조.

15) 趙穆, 『月川集』 卷4, 「心經稟質」, “竊謂心經一書，不用註文則已。如用註文，則宜莫如朱子集註章句諸說，而此書所引，多不用本註。……先生答曰，心經諸說，看得亦甚密。其中所引四書諸章處，病舊註多疏脫，欲去舊註，而一用朱子集註章句之說，此意固善。滉向來亦欲依此去取，則所去者或人之註，所

고 추가적인 반론을 펴지는 않았으나 그가 제시한 논란은 후대에 이어져 지속적인 논의를 생산하였다.

한편 寒岡 鄭述 역시 퇴계 생전 문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경부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심경부주』를 대폭 수정한 『心經發揮』을 저술한다. 의문이 난 지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스승과는 다른 설을 제창한 정구는 『심경발휘』에서 정민정의 서문과 안설, 「심학도」를 본문에서 제외하였으며 스스로 주석을 새로이 가려 뽑아 넣었다. 육상산과 오징, 정민정 등 존덕성 만을 높인 혐의가 있는 학자들의 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심경』이 가진 원래의 형태와 목적을 회복시켜 마음과 관련된 성현의 언설을 순전한 주자학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정구는 『심경』의 핵심인 ‘敬’에 대해 「敬以直內章」에서 상세히 조목을 나누고 풍부하게 주석을 추가하였다. 이는 『심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후대 南溪 朴世采 등에게 이어진다.¹⁶⁾

퇴계학파에서는 퇴계가 일찍이 「심경후론」에서 존덕성과 도문학을 새의 두 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를 예로 들어 말한 것을 가져와 자신들 역시 두 공부를 병진하는 입장임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퇴계학파 중·후기로 오면서 존덕성 공부 편중의 입장을 드러내 놓고 말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金宗德은 『心經講錄刊補』에서 존덕성·도문학 공부를 각각 본령과 지엽의 공부로 보고 있다.¹⁷⁾ 甘華 李鼎益의 경우 『心經講義』에서 존덕성과 도문학은 두 가지 공부가 아니지만 존덕성을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다. 그는 존덕성 공부에는 10분의 힘을 써야 하고 도문학 공부에는 7분의 힘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며 존덕성 공부를 강조한다. 그런 한편 도문학에 먼저 힘써야 한다 주장하는 학자들을 두고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거나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것과 같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였다.¹⁸⁾ 이렇듯 후대로 갈수록 존덕성 공부에 치우친 것은 갈수록 정계와 학계에서 퇴계학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심경부주』에 대해 율곡학파의 공격이 치밀해지며 학설의 독창성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한편 율곡학파는 존덕성에 편중된 퇴계의 시각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율곡학파에서 『심경부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尤庵 宋時烈이 숙종의 어명을 받아 『心經釋疑』를 편찬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박세채와 浦渚 趙翼 등이 『심경부주』에 관심을 가지긴 하였으나 대부분 진덕수의 『심경』이나 정민정의 『심경부주』에 대해 직접적인 주석이나 해설, 혹은 평가를 담고 있지 않으며 단순한 독후감에 가깝기에 율곡학파의 『심경부주』 독해는 마땅히 『심경석의』에서 출발했다고 보아야 한다.¹⁹⁾

송시열의 『심경석의』에는 기존에 진행된 『심경부주』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나는 『심경부주』에 담긴 존덕성 중심의 공부법을 지양하여 주자의 본래 의도로 다시 해석한 선대의 작업을 계승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퇴계의 연구성과에 대해 율곡학파의 성리학에 대한 성찰을 투영시키는 작업이다.²⁰⁾ 송시열은 이덕홍의 『심경질의』를 바탕으로 삼아 난해처에 주석을 달고 퇴계의 「심경후론」을 덧붙여 『심경석의』를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송시열

取者朱子之說，似爲無害。但以此經之行於今，殆與四子近思錄同其尊用，一朝輒以己意，有所改動，非徒人共駭怪，於心亦甚未安。”

16)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예문서원, 2007, 103면 참조.

17) 홍원식 외,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예문서원, 2008, 26면 참조.

18) 李鼎益, 『心經講義』, “尊德性道問學，非兩件事也。尊德性是上面工夫，當十分加勉。道問學是下面工夫，亦當七分做了。正如車輪鳥翼之不可廢一，而世之先問學，而後德性者，便是隔壁聽，隔靴爬，不察切己之實者。”

19) 홍원식 외, 위의 책, 185면 참조.

20) 이봉규, 위의 글, 22면 참조.

이 퇴계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며 율곡학파의 학설을 덧붙여 새로이 『심경부주』를 해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南塘 韓元震의 「心經附註筭疑」에 이르러서는 퇴계의 비판이 절정에 달한다. 한원진은 호론의 영수로 그의 저작의 곳곳에서 호론의 학설을 중심으로 한 주장을 살필 수 있다. 그는 특히 주자절대주의를 내세우며 주자의 논의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학설을 모두 이단으로 여겼다. 그렇기에 『심경부주』의 오징 및 정민정의 학설은 물론, 원 저자인 진덕수와 조선 퇴계의 학설까지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전부 비판하였다. 이 역시 존덕성과 도문학 사이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17세기 후반 정치와 학술 영역에서 이념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한 시도의 일환으로도 읽힌다.²¹⁾

이후 華西 李恒老는 위정척사의 입장에서 『심경부주』를 바라보아 「心經附註記疑」 등을 저술하였다. 서세동점의 시기 위정척사 운동을 지속한 이항로는 『심경부주』 속의 正과 邪를 철저히 구분하였으니 여기서의 정은 물론 주자학이요 사는 육상산의 학문이다. 그는 육상산과 정민정이 격물치지의 공부를 도외시하였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존덕성의 공부로 치우쳤다고 설명한다.²²⁾

한편 星湖 李瀾의 경우 『심경부주』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다. 그는 「心經附註疾書」의 서문에서 사람들이 『심경부주』를 많이 읽는 이유는 단순히 ‘이 시대가 이 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며 『심경부주』의 저자 정민정이 시제를 팔아먹었으며 겉으로는 주자를 높이거나 속으로는 육상산의 학문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뒤이어 그는 ‘『심경부주』는 비록 읽지 않더라도 괜찮은 책’이라며 『심경부주』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특히 ‘퇴계가 이 책을 좋아하여 …… 위로는 궁중에 진강되고 아래로는 집집마다 전해지며 구절마다 주해되어 빠진 것이 없으니 성인의 경전도 이만은 못하였다.’는 언급이 주목된다. 그렇더라도 『심경부주』를 읽어야하는 까닭을 ‘지금 이 책의 전체적인 규모는 제쳐 두고 절구만 익히더라도 옛 성인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는 데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²³⁾라고 설명한다. 주석보다 경문의 내용에 비중을 두고 의미를 음미하라는 이익의 관점을 살필 수 있다.

茶山 丁若鏞의 경우 심성의 수양을 통해 인간이 성인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에 적극 동의하며 존덕성과 도문학이 모두 필요한 공부법임을 강조한다. 정약용의 저술 『心經密驗』에서 주목할 점은 『심경부주』 안의 「존덕성재명」의 편명을 「朱子尊德性齋銘」이라 바꾼 점이다. 정약용은 ‘존덕성 공부를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니 이것이 큰 문제이다.’²⁴⁾라고 설명한다. 이어 정약용은 ‘주자가 언급한 존덕성’을 강조하며 존덕성과 도문학의 관계에 있어 존덕성이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정약용의 『심경부주』 이해는 퇴계의 그것과 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심경부주』에서 드러난 존덕성과 도문학의 방법론은 공간과 시간을 막론하고 문제시되었다. 이 문제의 단초를 마련한 퇴계 스스로는 존덕성과 도문학을 모두 중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외부에서 그의 저작과 언행을 볼 때 혐의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 두 입장을 면밀하게 가려내는 작업은 『심경부주』를 연구하는 것에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21)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예문서원, 2007, 214~221면 참조.

22) 홍원식 외, 위의 책, 272~282면 참조.

23) 李瀾, 『星湖全書』, 卷49, 「心經附註疾書序」, “心經附註, 何以讀. 因時之貴之也. 時何以貴之. 爲其袞聚洛建言語也. 然彼程氏者以其人則驚題而黷利也, 以其學則外朱而內陸也, 以其書則去取無章也, 雖不讀, 可也. 昔者退溪首喜此書, 與四子近思錄比. 當時門人無不講誦. 流于今成俗, 上之進獻於九重, 下之家戶傳習. 句句箋解, 細大莫遺, 殆聖經不如也. …… 今若舍置規模, 但習節句, 不害爲多識前言之助.”

24) 丁若鏞, 『心經密驗』, “其實所謂尊德性之工, 不知如何下手, 如何入頭, 此大夢也.”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과거 학자들은 그들의 학파와 입장에 따라 이를 편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감지된다. 정민정이 『심경부주』에서 부기한 주석이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 원래의 『심경』과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결의 과제로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3. 인심과 도심

『심경』은 정작 중국에서는 관심 없던 텍스트이나 조선에 수입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였다. 중국에서 『심경』을 구해달라고 하면 『般若心經』을 구해다 줬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頤齋 黃胤錫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회가 끝난 후 우연히 홍계희를 만났다. 홍계희가 주자의 여러 책을 보고 誤字와 闕文 등에서 의심이 나는 곳을 교감하여 하나하나 물었으니 나는 그와 함께 문답을 주고받았다. …… “또 서산 진씨(진덕수)의 『심경』이 조선에 온 것과 같은 경우 집집마다 『심경』을 갖추고 있으나 북경의 시장에서는 수차례 구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 역관이 『密陀心經』을 진덕수의 『심경』으로 오인해서 사 왔으니 이 책이 불경인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에 내가 “중국의 서적 중에는 우리나라의 역대 임금의 다스리던 훌륭한 시기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간행된 것이 한둘이 아닌데 중국에는 지금 도리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였다.²⁵⁾

중국에서는 오래전 일실되어 보이지 않는 책이 조선에서는 많이 남아있다는 진술이다. 『심경』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심경』은 단순히心和 관련된 경전의 글귀를 모으고 별다른 해석 없이 기존의 주석 몇 가지를 덧붙인 것이기에 중국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퇴계의 학문을 존중한 山崎闇齋 역시 퇴계가 『심경부주』를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²⁶⁾ 하지만 조선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심경부주』는 퇴계 이후로 지속적으로 조선에서 읽힌 텍스트인 것이다. 『심경부주』의 전반을 이루는 체제와 방법에 있어서 존덕성과 도문학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심과 도심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일어난 부분 중 하나인 「人心道心章」은 『서경』 「大禹謨」의 한 구절인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에 대한 논의이다. 이 한 구절은 주자가 「中庸章句序」에서 16자 심법을 기준으로 유학의 도통을 설명한 이래로 매우 중시되었다. 물론 이 구절은 동진 시기 梅賾이 지어낸 위고문에 속한다. 그러나 『심경부주』가 수용된 조선 중기에는 위고문의 논란이 심하지 않았을뿐더러 이후에도 조선의 학자들에게 있어서 위고문의 문제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²⁷⁾

『심경부주』의 「인심도심장」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인심·도심의 관계 및 소종래와 정복심이 그린 「心學圖」의 이해에 대한 것이다. 「심학도」는 성현들이 마음에 대해 논한 것을 끌어

25) 黃胤錫, 『頤齋亂藁』 卷14, 영조 46년 3월 13일, “朝後偶逢洪啓禧于一處. 洪歷舉朱書, 校讐誤字闕文可疑處, 一一問之, 余亦隨問隨答. …… 又如眞西山心經東來, 殆家藏而戶棄, 獨燕市累求不得. 近年譯官, 乃以密陀心經誤認西山心經, 而購來, 不知此乃佛書耳. 余言中國書籍, 自我祖宗盛時, 東來傳印者, 不一, 而中國, 則今反無傳者有之.”

26)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965, 254면 참조. 佐藤仁, 「이퇴계와 『심경부주』」, 『퇴계학보』 68, 퇴계학연구원, 1990 재인용.

27) 조선 후기 위고문에 대한 입장은 이영호, 「조선후기 『僞古文』의 옹호와 한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66, 동방한문학회, 2016 참조.

Figure 1: The Eight Principles of the Heart

Central circle: 心 (Heart) with 神 (Spirit) on the left, 靈 (Soul) on the right, and 主 (Master) below it.

Surrounding boxes (clockwise from top-left):

- 本心 (Original Heart)
- 良心 (Conscience)
- 赤子心 (Child's Heart)
- 人心 (Human Heart)
- 道心 (Heavenly Principle)
- 惟精惟一 (Refinement and Unity)
- 戒懼 (Reverence)
- 操存 (Cultivation)
- 心在 (Heart Present)
- 未放心 (Heart Not Settled)
- 正心 (Rectification of Heart)
- 四十不動心 (Forty Years of Immovable Heart)
- 七十而從心 (Seventy Years of Following Heart)
- 盡心 (Exhaustion of Heart)
- 心思 (Thought)

그러나 퇴계는 「심학도」의 조목이 단순한 병렬 관계로 그려진 것이지 이것을 인심과 도심, 존천리와 알인육 등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견지한다. 물론 이는 정복심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 답변이기는 하다. 하지만 퇴계는 단순한 도식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서로 섞이고 침투되어 있는 이치의 다면성을 강조하였다.³¹⁾ 「심학도」는 이후 『聖學十圖』의 여덟 번째 그림으로 그대로 수록되었으니 퇴계의 생각에 변함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율곡이 지적

31)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09면 참조.

한 「심학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은 후대 학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퇴계의 후대 역시 대부분 「심학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정익의 경우 「심경강의」에서 ‘이 논의(「심학도」)는 심학의 요체를 발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니 정민정이 편지 첫머리에 붙인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이다.’³²⁾라며 「심학도」를 높이고 이 도설을 첫머리에 실은 정민정 역시 긍정한다.

한편 박세채는 「심학도」를 바라보는 퇴계와 율곡의 시선 차이에 대해 ‘퇴계는 비록 분별하여 대거함으로써 큰 틀에서 말했으나 그 말에 있어 종종 억지로 끌어붙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 율곡은 알인육과 존천리를 두 공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중용』의 戒懼와 謹獨의 본지를 깊이 살피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라고 하였다. 박세채의 진단은 일견 퇴계 두 학자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듯하나 퇴계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율곡은 ‘깊이 살피지 못’하였다는 판단에서 퇴계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율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지할 수 있다.

율곡의 「심학도」 이해는 조선 후기의 율곡학파인 鹿門 任聖周에게도 이어진다. 임성주 역시 「심학도」에서 각 조목의 분속, 즉 존천리와 알인육 공부를 나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존천리와 알인육 공부는 진실로 둘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로 관통하는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나눌 수는 없다.’³⁴⁾ 설명한다. 율곡학파의 학자들은 「심학도」의 배치에 체계와 차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속적으로 비판한다.

한편 인심과 도심, 인심과 인육의 관계에 대한 논의 또한 주목된다. 주자는 「중용장구서」에서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도심은 성명의 바름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인심과 도심이 별개의 기원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진덕수 또한 ‘인심은 기에서 나오고 도심은 성에 뿌리두고 있다.’³⁵⁾는 언급을 통해 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한편 주자는 인심과 도심은 두 가지 별개의 사물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하며³⁶⁾ 일견 모순된 입장을 취한다. 주자의 모순된 언급에서 이미 각 개념의 관계에 대한 논쟁의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다.

퇴계는 도심은 천리에서 곧바로 나온 것이며 인심은 인육에서 비뚤어져 생겨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곧 인심과 도심이 별개의 뿌리에서 출발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율곡학파의 입장에서는 퇴계가 인심과 도심의 소종래를 별개로 본 사실이 마땅치 않았다. 율곡은 인심 역시 도심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性에서 발동되며 氣의 은폐 여부에 따라 구분될 뿐이라고 설명한다.³⁷⁾ 이 문제는 세대를 거듭하며 두 학파간 입장 차이를 명백하게 드러내게 된다.

한원진의 「심경부주차의」는 율곡의 입장을 완벽히 대변한다. 한원진은 인심과 도심을 각각 기발과 리발로 분속하는 퇴계의 논리를 분명히 반대하고 그러한 논리의 부당함을 적극 변설한다. 한원진은 마음의 발용을 리발과 기발로 나누어 보는 것은 형기를 마음의 기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지적한다.³⁸⁾ 그의 논의는 마음의 문제에서 一途說을 제창한 율

32) 李鼎益, 『甘華集』 卷4, 「心經講義」, “所論亦足以發明心學之要, 而篁墩之附著於篇首者, 其以是矣.”

33) 朴世采, 『心經標題』, “退溪雖從分對大槩而言, 然非但說得往往不免於牽強. …… 栗谷至以, 遏人慾存天理, 分兩邊工夫爲非似, 亦未能深察於中庸戒懼謹獨之本旨也.”

34) 任聖周, 『心經經義』, “存遏工夫, 固可以兩邊分說也, 而其中各有貫通爲一之妙, 則亦不可分開太甚也.”

35) 『心經附註』 卷1, “夫聲色臭味之欲, 皆發於氣, 所謂人心也, 仁義禮智之理, 皆根於性, 所謂道心也.”

36) 『心經附註』 卷1, “但此不是有兩物. 只是一人之心, 合道理底是天理, 徇情欲底是人欲, 正當於其分界處, 理會.”

37) 이봉규, 위의 글, 98~99면 참조.

38) 홍원식 외, 위의 책, 217~218면 참조.

곡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그의 저작인 「심경부주차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대 율곡학파의 학자들의 설을 취합하고 이를 통해 퇴계학파의 설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곡학파에서 지속적으로 율곡의 학설을 기반으로 퇴계의 학설을 비판하고 『심경부주』의 오류를 지적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퇴계학파에서도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에 鄭萬陽, 鄭葵陽 형제는 1731년에 「心經釋疑補遺」를 통해 송시열의 『심경석의』의 미진한 부분을 비판하고 퇴계학파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종덕은 『심경강록간보』에서 퇴계의 학설을 오롯이 제시함으로써 『심경부주』에 대한 율곡학파의 입장에 대응한다. 그렇기에 앞서 살폈듯 인심과 도심의 관계, 존덕성과 도문학의 입장 등에서 여지없이 퇴계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율곡학파에서 이토록 『심경부주』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하며 개정한 것은 아마도 이를 통해 퇴계학파와의 차이를 부각하고 학문적,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미 퇴계가 중시하며 필독서의 반열에 오른 『심경부주』에 대해 율곡학파에서는 자신들의 학설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보완하였다. 인심과 도심의 관계를 나타낸 「심학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필 수 있다.

4. 수양과 정치

이상의 과정을 통해 수기에 목적을 둔 『심경부주』는 조선에서 한 권의 학술서이자 수양서로 굳게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수신의 문제는 사대부 뿐만 아니라 국왕에게도 유효한 문제였다. 조선의 학문적 기반인 주자학은 수신이 이루어지면 곧 치국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학문이다. 그렇기에 정치에 있어서도 개인의 마음 수양이 중시되었고, 이는 특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그렇기에 『심경부주』는 치국을 위한 수단으로 읽히기도 하였다. 『심경부주』의 이러한 면모는 실록에서 다양한 사례로 드러난다.

『심경부주』가 초창기 경연에서 읽혔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심경부주』가 ‘제왕학’으로서의 교재로 쓰였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으나³⁹⁾ 조선에서 경연에서의 목적이 왕의 내면을 수양하고 주자학에 달통함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치국으로 확산하는 것에 있기에 경연에서 진강된 『심경부주』 역시 왕의 마음 수양을 통한 수기의 완성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퇴계와 그의 제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된 『심경부주』는 수신의 요체를 담은 책이기에 사대부 계층에서 널리 읽혔으나 사림파가 대거 등용됨에 따라 국왕의 경연에서 교재로 추천되기 시작한다. 실록에서 기록된 『심경부주』에 대한 초반의 논의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마음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장 앞선 실록의 기록은 이언적의 언급이다. 이언적은 중종에게 『심경부주』 공부를 권유하였으니⁴⁰⁾ 이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정계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림 세력과 관계가 깊다.⁴¹⁾ 선조대에는 퇴계에 의해 『심경부주』의 권위가 높아졌으며 점차 사대부의 필독서가 되어간다. 인

39) 정대진, 「한강 정구의 『심경발휘』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40) 『중종실록』 卷94, 중종 36년 3월 23일, “傳于政院曰昨日經筵, 副提學言大學衍義已爲進講, 而眞德秀所撰心經, 亦甚有關於觀覽云. 其冊二件入內.”

41) 이창일 외, 『심경철학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364면 참조.

조반정이 이루어진 해인 1623년, 芝峯 李睟光은 인조에게 제왕의 마음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제왕의 학문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강론하는 『논어』, 『대학연의』 등도 좋지만 그래도 『심경』과 『근사록』만은 못하니 학문에 종사하는 신하들에게 항상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훌륭한 정치를 행하시려는 마음이 혹 처음은 부지런하다가 끝에 게을러지게 될까 염려됩니다. 만약 마음공부를 근본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이러한 화가 없을 것입니다.⁴²⁾

이수광은 제왕의 학문에 있어서 『논어』와 『대학연의』가 『근사록』, 『심경부주』보다 못하다고 설명하며 마음공부의 절실함을 논하고 있다. 이수광이 말한 ‘학문에 종사하는 신하’란 물론 『심경부주』를 위시한 마음공부에 독실한 학자를 말한다. 처음은 부지런하다 끝에 게을러질까 염려하는 모습에서 인조반정이 이루어진 해에 반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훗날을 반드시 도모해야 한다는 이수광의 시선 또한 느낄 수 있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송준길, 송시열 등과 『심경부주』를 독실히 읽었으며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은 효종의 관에 『심경부주』 한 권을 같이 넣기도 하였다.⁴³⁾

숙종대는 한국이 계속해서 일어난 시기로 집권 당색에 따라 학술의 주체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송시열은 제왕의 학문이 비록 일반 선비와 동일하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수양하여 간략한 것으로 번거로움을 통솔하거나 고요함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어하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며 『심경부주』에 대한 중요성을 숙종에게 강조하였다.⁴⁴⁾

한편 이 시기 정치적 재기를 꿈꾸던 남인은 『심경석의』를 송시열을 실각시키는 결정적인 기회로 삼았다. 특히 金邦杰은 송시열이 『심경석의』를 편찬하며 참고한 『심경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방하였다.

새로 간행한 『심경석의』는 본래 이항의 문인인 이덕홍과 이함형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덕홍은 식견이 고루하여 그 논설이 스승의 훈계를 등진 것이 많고, 이함형이 기록한 것은 아직 바로잡지 않았습니니다. 선사가 돌아가신 뒤 이항 후손의 집과 서원에는 모두 이 책이 없었습니다. 한 책이 이덕홍의 집에 보관되어 왔을 뿐인데, 그의 외손 김만효가 패려스런 성행 때문에 향곡에서 버림을 받고 있던 중 드디어 이 책을 이항이 정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송시열에게 바쳤고, 마침내는 천청에까지 아뢰어져 중외에 간포되었는가 하면, 김만효를 나이 많고 학문이 깊다 하여 재랑에 천거 하였으니, 성명을 속이고 선현을 속인 것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문자를 다시 열람하셔서 안됩니다.⁴⁵⁾

42) 『인조실록』 卷2, 인조 1년 7월 24일, “帝王之學, 以治心爲本, 方今所講論語大學衍義雖好, 猶不若近思錄心經性理大全等書也. 儒臣中從事學問者, 宜常常顧問也. 臣恐殿下圖治之心, 或未免始勤終怠. 若以心學爲本, 則必無是患矣.”

43) 『숙종실록』 卷27, 숙종 20년 10월 18일, “聖賢之法, 莫如心經一書. 孝宗大王酷好此書, 寘天之日, 先大王至取此書, 納之玄宮.”

44) 한형조 외, 『심경: 주자학의 마음 훈련 매뉴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92~93면 참조.

45) 『숙종실록』 卷20, 숙종 15년 윤3월 9일, “新刊心經釋疑, 本出於李滉門人李德弘李咸亨之手, 而德弘識見固滯, 其說多背師訓, 咸亨所記, 未及訂定, 先師下世, 李滉後孫家及書院, 皆無是本, 其一本, 只藏德弘家, 而其外孫金萬然, 性行悖戾, 見棄鄉曲, 遂以此書, 指爲李滉所訂定, 而獻于宋時烈, 終至上徹天聽, 刊布中外, 且以萬然年高積學, 薦爲齋郎, 其欺聖明誣先賢甚矣. 如此舛訛文字, 不可更經睿覽.”

김방걸은 이상의 이유로 『심경석의』를 파판해야한다 주장하였으며 숙종 또한 이를 따랐다. 이후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남인의 논의는 수그러들었고 서인들은 『심경석의』를 다시 반포해야한다고 주장했다.⁴⁶⁾ 1694년 10월 18일에 실시된 晝講에서 검토관 閔鎭厚는 『심경부주』가 선대왕인 효종도 열독하였으며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는 태만해지는 사람의 마음을 다 잡는 데 『심경부주』만한 책이 없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뒤이어 그는 ‘그전에 반포했던 『심경석의』를 일찍이 이미 本院에 모아 장차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의 건백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태워버림은 매우 불가하니 마땅히 도로 반포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숙종은 민진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심경석의』는 다시 반포되게 된다.⁴⁷⁾ 실록에는 동지경연사 李畬의 언급이 이어지니, 이어 또한 일전에 『심경석의』를 비난한 상소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심경석의』가 훌륭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송시열의 『심경석의』는 송시열과 정치적 부침을 함께 겪으며 일종의 정치 수단으로 사용된 책이기도 하다. 『심경부주』를 대하는 국왕의 태도는 영·정조대에 이르러서 일변한다. 신하의 간언에 의해 『심경부주』를 읽던 기존과는 달리 왕이 『심경부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처하여 『심경부주』를 읽은 것이다. 영조는 ‘몸소 행하고 실천하는 공부와 겉으로 드러나는 英華가 안팎으로 차이가 없으십니까’라는 박필몽의 질문에 ‘겉에 실제로 터득한 공부가 없거늘, 하물며 어찌 함양하는 공부가 있겠는가. 동궁에 있을 때부터 오늘까지 안팎으로 함께 수양하는 공부가 없었으므로 함께 수양하는 공부를 하고자 한다. 경계로 아뢰는 말이 좋으니 각별히 유념하겠다’⁴⁸⁾라며 『심경부주』를 통해 내면의 수양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결심을 내비친다.

여기서의 함양 공부는 『심경부주』를 통한 함양 공부이다. 『심경부주』가 사림들로부터 임금에게 향한 것에서 벗어나 임금이 자발적으로 덕성을 높이는 공부를 하기 위해 『심경부주』를 읽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영조는 유교 국가의 체제에서 왕이 도통을 자임함으로써 얻는 왕권 강화의 목적 또한 계산하여 『심경부주』를 강독하였다. 영조는 태만한 신하들에게 종종 『심경부주』를 읽으라 강요하기도 하였으니 『심경부주』 공부를 일신을 수양하는 목표이자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조 이후 왕위에 오른 정조는 호학 군주로 유명하다. 그 역시 『심경부주』를 높이 평가하였다.

대체로 이 篇은 先正이 旅邸에서 얻은 것이어서 조각난 쪽지와 떨어진 책장이 마구 뒤섞여 두서가 없는 탓으로 하나의 통일성 있는 책을 이루지 못하였다. 때문에 선정이 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고증하는 것을 만년의 공부로 삼았다. 그런데 附注와 상고한 말들이 각기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황돈의 경우는 학문이 바른 길을 잃어서 말에 오해된 것이 많았으니, 지난날 先正의 명쾌한 변석이 아니었다면 어찌 후학을 가르치는 탄식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경전의 큰 가르침과 성현의 중요한 공부가 모두 이 한 편의 글에 들어 있음을 뚜렷이 고증할 수 있으니, 말세의 어둠을 밝혀 주고 말학의 본보기가 되는 典則임은 물론 위로 皇王에서부터 아래로 匹庶에 이르기까지 그 全體와 大用에 대한 공부를 함에 있어 이 책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겠는가? 선정이 이른바, 『근사록』에 못지 않다고 한 것은 참으로 절실한 말인 것이다.⁴⁹⁾

46) 한형조 외, 위의 책, 101~104면 참조.

47) 『숙종실록』 卷27, 숙종 20년 10월 18일, “舊頒心經釋疑, 曾已聚于本院, 將火之. 當時所建白, 未知其如何, 而燒燼甚不可, 宜還頒. 上從之.”

48)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2일, “上曰外無實得之工, 況豈有涵養之工乎. 自春宮至今日, 無內外交養之工, 故欲爲交養工夫, 陳戒之言, 好矣. 當各別留念焉.”

49) 『정조실록』 卷11, 정조 5년 3월 18일, “蓋此篇, 先正得之於旅邸, 而斷簡殘篇, 錯雜無緒, 不成一統之書, 故先正蒐釐考證, 以爲晚年之工, 而附奏與按說, 不但各自不同, 程篁墩, 則學失正路, 言多誤解.”

정조는 『심경부주』에 대해 ‘말세의 어둠을 밝혀주고 말학의 본보기가 되는 전책이며 상하의 구분 없이 모두가 따라야 하는 공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주목할 것은 ‘지난날 선정의 명쾌한 변석이 아니었다면 어찌 후학들을 그르치는 탄식이 없었겠는가?’라는 대목이다. 즉 정조 역시 『심경부주』의 주석에 후학을 그르칠 수 있는 혐의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앞서 뛰어난 신하들이 『심경부주』를 연구하며 폐단을 걷어내고 학설을 치밀하게 밝혔기에 그 효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정조는 『심경부주』에 폐단이 있기는 하나 이를 잘 가려내어 본다면 훌륭한 마음 수양의 공부법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이는 퇴계가 『심경부주』를 바라본 시각과 유사하다.

또한 정조는 ‘학문에 나아가는 데는 『심경』보다 더 요긴한 것이 없다.’⁵⁰⁾ 『심경부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었다. 정조는 스스로 임금과 스승의 지위를 겸한 君師로 자처하며 주자학에 통달하였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런 정조가 『심경부주』를 높이 평가한 것에서 퇴계 이후로 지속된 조선의 『심경부주』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나날이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심경부주』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 쓰이던 교재였으나 수신이 곧 치국으로 이어지는 주자학의 흐름 속에서 『심경부주』는 사대부 뿐만 아니라 임금의 정치서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였다. 조선 중기 『심경부주』가 처음 언급되었을 때에는 사림 세력에 의해 임금의 도학 이념 수립을 위해 『심경부주』가 진강되었고, 한 때엔 정치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으며 후대에는 국왕 스스로가 성리학적 심성 수양에 더하여 군왕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경부주』가 이용되었다. 주자학의 나라 조선에서 『심경부주』가 정치 일선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며 관점에 따라 달리 읽혔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나가며

『심경부주』는 흔히 『소학』, 『근사록』과 함께 묶여 자주 거론된다. 『소학』이 행동 규범을 비롯한 외면의 다스림을 통한 규율, 즉 수신의 대체를 일러주는 책이고 『근사록』이 우주론과 공부법 등 성리학의 규모, 즉 의리의 정밀함을 알려주는 책이라면 『심경』은 성리학에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곧 마음의 수양법을 일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책은 모두 주자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론적, 실천적 체제를 확고하게 한 저작이다.

진덕수의 『심경』은 유가 경전의 문장을 경문으로 제시하고 주자를 비롯한 몇 학자들의 주석을 아래에 부기한 책이다. 또한 이를 편집한 정민정의 『심경부주』는 성현의 말과 글을 기록한 경문과 그에 대한 학자들의 주석, 이에 대한 후대의 추가적인 편집과 상호 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책이다. 이는 여타 유가 경전과 成書의 과정이 흡사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자학의 실천을 삶과 학문의 목적으로 삼았던 조선의 학자들은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심경부주』를 공부하고 연구하였다. 조선시대 도학자들에게 있어 수양의 문제는 작게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크게는 나라를 운용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작용하였

向非先正之明辨，則安知無誤後學之歎也。然而經傳之大訓聖賢之要工，盡在一篇，歷歷可攷，則燭昏於末世，柯則於末學，上自皇王，下及匹庶，其全體大用之工，舍此書何以哉。先正所謂不在近思錄下者，真切實語也。”

50) 正祖,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一, “進學, 莫要於心經.”

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심경부주』의 연구 동향은 13경으로 일컬어지는 다른 유가 경전과 비교했을 때도 그 치밀함이 뒤지지 않는다.

퇴계가 『심경부주』를 높인 이래로 조선에서는 『심경부주』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퇴계의 제자부터 율곡학파의 학자에 이르기까지 퇴계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비판하기도, 추가하여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심경부주』라는 책을 자신의 공부법의 근거로 삼고자 한 퇴계에서 시작된 『심경부주』에 대한 논의는 조선의 학문을 육상산의 심학과는 다른 주자학적 심학의 방향으로 이끌었으며 이에 따라 『심경부주』는 조선 주자학의 주요한 저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조선에 수입된 『심경부주』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이는 조선 주자학의 자장 안에서 『심경부주』라는 독특한 텍스트가 가진 독창적 면모의 일단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심경부주』가 존덕성과 도문학이라는 주자학의 공부 방법에 대한 논의와 인심과 도심의 관계라는 심성론에 대한 논의를 생산하고 수양의 교과서이자 정치 일선에서 등장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논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답을 내놓았음을 확인했다. 조선의 학자들에게 있어 『심경부주』의 논의는 언제나 시의성 있는 절실한 논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근본이 되는 것은 모두 『심경부주』에 수록된 경전과 주석의 글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서 출발한다.

조선의 학자들은 『심경부주』에서 존덕성과 도문학, 인심과 도심의 문제만을 주목하지 않았다. 『심경부주』는 총 3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30장이 유가 경전에서 인용한 글이다. 그렇기에 『심경부주』의 궁구는 그 자체로 유가 경전에 대한 궁구로 이어진다. 『심경부주』는 그 틀을 마음의 문제로 한정시킨 저술일 뿐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생각한다면 『심경부주』와 관련된 논의 역시 경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심경부주』는 조선 경학의 외연과 저변을 확대한 저작이며 주자학에서 바라보는 마음에 대한 논의의 장을 새롭게 열어젖힌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道一編』
『星湖全書』
『心經講義』
『心經經義』
『心經密驗』
『心經附註』
『月川集』
『栗谷全書』
『頤齋亂藁』
『退溪言行錄』
『退溪集』
『弘齋全書』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박경환, 「공부 방법론으로서의 존덕성과 도문학 : 주희와 육구연의 아호 논쟁」, 『중국철학』 4, 중국철학회, 1994.

이봉규, 「『心經附註』에 대한 조선성리학의 대응」, 『태동고전연구』 12, 태동고전연구소, 1995.

이영호, 「조선후기 『僞古文』의 옹호와 한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66, 동방한문학회, 2016.

이창일 외, 『심경철학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정대진, 「한강 정구의 『심경발휘』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정재훈, 「『대학연의』와 조선의 정치사상」, 『한국사상사학』 64, 한국사상사학회, 2020.

한형조 외, 『심경: 주자학의 마음 훈련 매뉴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홍원식 외,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예문서원, 2008.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예문서원, 2007.

佐藤仁, 「이퇴계와 『심경부주』」, 『퇴계학보』 68, 퇴계학연구원, 1990.